

KIA, 35년만의 우승 카퍼레이드... 광주가 들썩였다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과 나성범 주장을 비롯한 선수들이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에서 5·18민주광장까지 V12 우승 축하 카퍼레이드를 펼치며 KIA 팬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30일 금남로 거리서 축하 시가행진
선수단 보러 1만명 구름인과 '발길'
DJ센터서도 'V12 타이거즈 페스타'
"한해동안 큰 위안... 왕조재건 확신"

11월의 마지막 날, 광주 동구 금남로와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에는 KIA타이거즈의 12번째 통합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야구팬이 운집했다. 저마다 타이거즈의 상징인 붉은색 모자를 쓰거나 가을점퍼를 입고,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한겨울 열린 도심 북판 야구축제를 만끽하며 다가올 내년 봄날을 기약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는 KIA타이거즈의 2024 신한은행 SOL뱅크 프로야구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을 기념하기 위한 카퍼레이드(차량 시가행진)가 열렸다.

이날 시가행진은 KIA타이거즈의 전신

인 해태타이거즈의 1989년 우승 이후 35년만이다.

오후 2시께 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경찰과 군악대를 뒤따라 금남로5가에 모습을 드러내자, 거리는 한국시리즈 당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열기를 그대로 옮겨 온 듯 시민들의 함성과 환호로 가득 차다.

시민들이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자 이범호 감독과 김선빈, 양현종, 김도영 등 우승 주역들이 차 위에서 손을 흔들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버스는 금남로를 천천히 이동했고, 시민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어 선수들의 사진을 찍거나, 소중한 추억을 영상으로 남기기에 바빴다.

광주의 향토사단인 제31보병사단 군악대가 연주한 응원가 'KIA 없이는 못 살아'와 '외쳐라 최강KIA'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자, 금남로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팬들은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을 축하했다.

야구선수를 꿈꾸는 어린 학생들은 '위풍당당'하게 퍼레이드를 펼치는 선수들의 얼굴을 한명 한명 눈에 담으며, 언젠가 타이거즈 선수단의 일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김강찬(계림초 5년)·명보담(풍향초 5년)·정세인(효동초 5년)군은 "다니는 학교는 세명 모두 다르지만, KIA를 좋아하는다는 공통점 하나로 친구가 됐고, 야구선수를 꿈꾸게 됐다"며 "언젠가 (정)해영이형, (윤)영철이형과 꼭 같은 팀에서 뛰고 싶다"고 수줍게 웃어보였다.

이승현·조성찬(충장중 2년)군도 "(이)의리형과 (김)도영이형을 롤모델로 삼으며, 학교 야구부에서 매일 기량을 갈고닦고 있다"며 "올해 한국프로야구 무대를 제패한 KIA선수단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 프로구단 지명을 넘어서 한국시리즈 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큰 선수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 2면에 계속
정성현·윤준명 기자

알립니다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수상자 선정

시상식 12월 10일(화) 오후 2시... 광주은행 본점 3층 KJ상생마루

생활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환경운동을 실천해온 '환경지킴이'들이 제30회 녹색환경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10일(화) 오후 2시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 KJ상생마루에서 열립니다.

올해 녹색환경대상은 종합대상과 4개 부문에서 각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10일(화) 오후 2시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 KJ상생마루에서 열립니다.

영예의 수상자

- ▷ 종합대상(환경부장관상): 조선내화(주)
- ▷ 생활 속 환경실천부문 대상: 전라남도 나주시
- ▷ 자연환경보전부문 대상: (주)한솔이앤씨 박상욱
- ▷ 환경교육부문 대상: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영산강문화관
- ▷ 서한태환경상: 크리에이티브아트

※ 시상은 상패 및 상금.

■ 종합대상 500만원 ■ 부문별 대상 300만원(개인 200만원) ■ 서한태환경상 100만원
*수상자 공적은 본보 12월 10일자에 실습니다.

주 최 광주은행·전남일보 주 관 (사)전일엔컬스
후 원 환경부·전라남도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행사"

광주비엔날레 폐막... 외신 '호평'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 86일간 대장정을 마치고 1일 폐막한 가운데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지난 9월6-7일 양일간 진행된 국내외 기자 설명회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 전 세계 30여 개 외신이 참석했고 스페인 유력 매체 유로파프레스, 이탈리아 종합지 ADN 크로노스, 독일 월스트리트 온라인 등에서도 보도하며 세계 5대 비엔날레 명성을 굳건히 했다.

이 밖에도 프랑스 국영 라디오 RFI, 중국 신화통신, 아시아 총괄 통신사 니케이 아시아 등 해외 언론을 비롯해 현대미술 전문지 아트포럼, 프랑스 르주르날 데자르 등 미술 전문지도 현장을 방문하며 뜨거운 관심에 동참했다.

영국 매체 아트 리뷰는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와의 인터뷰를 실으며 광주비엔날레를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규모 예술 행사 중 하나'로 꼽았다. 아트 리뷰는 "기후 변화 시대의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며 "예술은 우리의 의식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서 예술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